2019 동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 보고서

2020.1.13~2020.1.18(히로시마)

미디어학과

201721103 김소민

나는 아주대에서 2018-2학기부터 일본어1, 2 교양수업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2019년 8월에 JLPT N2에 합격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지만 일본 회사는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서 두려움이 있었다. 그 때 OJT를 알게 되어 참가했다. OJT를 가기에 앞서 일본어를 공부한지 얼마 안됐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인턴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됐었다. 국제학부에서 비행기 표나 호텔 숙박비 등을 지원해줘서 금전적인 부담은 없었다. 전체 일정은 5박 6일이었고, 그 중 3박 4일이 다이코IWS사에서 진행하는 OJT였다. 회사의 전체 일과는 9시 출근,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4시 30분 미팅 5시 퇴근이었다. 회사원 분들은 6시에 퇴근한다. 회사에서 3박 4일간의 전체 일정표를 주고, 이에 맞춰서 OJT가 진행된다.

첫번째 날(1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후쿠오카에 도착한 후,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히로시마로 이동했다. KTX도 타 본적 없는데 신칸센을 타서 신기했다. 신칸센 중에서 사쿠라라는 신칸센이 제일 좋다고 했다. 나중에 히로시마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길에 노조미라는 신칸센을 탔는데 사쿠라가 확실히 흔들림이 적어서 더 편안했던 것 같다. 회사 출근은 다음날에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팀원들과 함께 히로시마를 히로시마 성과 원폭돔을 구경했다.

두번째 날(14일)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OJT를 진행해주시는 분들과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했다. 그리고 다이코IWS의 회사 소개를 들었다. 오후에는 비즈니스 매너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다. 먼저 PC사용법을 배웠는데 나는 평소에 PC를 자주 써서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요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PC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PC 사용법도 회사에서 알려주는 것 같다. 워드를 사용해서 회사 안에서 사용할 이름표와 명함을 만들었다. 명함에는 개인 정보를 적은 후 좋아하는 사진을 넣었다. 히로시마는 도요 카프라는 야구팀이 인기가 많아서 마스코트 사진을 넣으니 회사 분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 후 자신이 만든 명함으로 명

함 교환 예절을 배웠다. 명함 교환의 기본 예절은 명함 지갑위에 자신의 명함을 상대를 향해 올려 놓고 건네는 형식이었다. 1대1, 1대 다수 등의 상황에 대한 연습도 했다. 회사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지만 경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명함 교환 연습이 끝난 후 다이코 회사 분들과 교류가 있었다. 교류 진행을 하신 스미다 씨와 다른 회사원 3분과 대화를 했다. 그 분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다. 먼저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세 분 다 힘든 일이 없다고 하셨다. 내가 보기에도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업무 이외에는 힘들 것이 없어 보였다. 회사 잔업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내에서 잔업을 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잔업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점은 참 부러운 것 같다. 그 외에 히로시마 맛집이나 명소에 대한 이야기 등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교류를 마쳤다. 항상 퇴근 30분 전에 오늘 배웠던 것이나 느낌에 대한 미팅을 했다. 첫 날에 느낀 점은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것이었다. 회사에 정장을 입고 가야한다고 해서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교육을 진행하신 분들 이외에 다른 회사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셨다. 업무 시간에는 사람들이 대화를 안하고 일만 할 줄 알았는데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회사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그리고 정장을 입는 분도 있었지만 편한 복장을 입는 분들도 많았다. 복장은 개인 선택인 것 같다. 매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으려면 정장이 편하긴 할 것 같다.

세번째 날(15일)

OJT 2일차이다. 회사 출근 후 아침 미팅에서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 들었다. 먼저 전화 응대 연수를 했다. 회사에 오는 전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다. 전화 응대 방법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연습을 했다. 외선 내선에 대한 것도 처음 들어보고, 경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건 사람이 찾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전화 메모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용무로 전화가 왔었는지 메모하는 것인데 굉장히 유용했다. 히라다 씨와 실제로 전화를 받아보며 실전 연습을 했다. 그 다음, 기업의 보안과 관련된 ISMS에 대해서 배웠다. 회사에는 여러 상황의 대처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사원들은 이것을 숙지하는 테스트도 치룬다고 들었다.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신뢰를 얻어야 해서 회사 내의 보안을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오후에는 회사의 서버를 맡긴 데이터센터에 갔다.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에도 문제없는 건물이다. 외부인의 출입도 엄격해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맥 인증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보니 보안이 엄격해서 서버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래는 서버를 다이코 회사 건물안에 배치했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 옮겼다고 한다. 데이터 센터에 옮긴 후로는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불만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굉장히 하이테크한 곳이고, 한국에서도 가보기 힘든 곳이라 신기했다. 회사로 돌아온 후에 보고서 작성법을 배웠다. 보고서 작성법을 배운 후부터 매일 오후 미팅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첨삭을 받았다. 일본어 교양 수업 이후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을 받는 건 처음이라 정말 도움이 됐다.

네번째 날(16일)

OJT 3일차이다. 회사를 방문한 손님에게 커피를 내는 예절을 배웠다. 커피 잔을 내려 놓고 잔 앞에 설탕과 프림, 스푼을 놓는 것이다. 실전 연습 겸 회사의 모든 분들께 커피를 내며 자기소개를 했다. 사실 첫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인사해서 아쉬웠다. 그 다음, 자신만의 전화 메모를 만들었다. 구글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고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오후에는 다음날 있을 발표 PPT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소개하는 주제였다. 내가 배운 것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역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쉬울 것 같았다. 미디어학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PPT자료를 구성하기 쉬웠다.

다섯 번째 날(17일)

OJT 마지막 날이다. 오전에는 PPT작성에 매진하고 오후에 발표를 했다. 발표 시간은 10분 정도였는데 30분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했다. 일본어로 처음 발표하는 것이어서 어떤 말투로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다. PPT작성 할 때 조금 조사할 걸 그랬다. 발표 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이었다. 다음에 발표할 때는 대본이나 말하기를 더 준비해서 발표하고 싶다. 발표회를 마친 후에는 연수 레포트를 작성했다. 4일간의 OJT를 정리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미팅을 하면서 OJT를 마쳤다. 퇴근 길에 OJT연수를 진행해주신 이시우에 씨와 스미다 씨가 히로시마 거리를 안내하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배웠다.

여섯 번째 날(18일)

히로시마 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 하카타 역으로 이동해서 후쿠오카 공항으로 왔다.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OJT를 하면서 느낀 점은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회사 분위기를 보면서 일본 회사에서 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를 배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비즈니스 매너는 회사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과의 교류에서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외부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인턴을 해본 적 없어서 비즈니스 매너를 잘 몰랐는데 다이코 회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다. 사실 OJT를 가기 전에 일본어 회화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일본어를 계속 듣다 보니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회사가 편안한 분위기라 긴장을 덜해 쉽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도 내 실력이 비즈니스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일본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OJT에 대한 느낀 점을 보고서에 전부 담지는 못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꼭 한번 OJT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